

융복합 시대에 대학생의 완벽주의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동아리활동만족도의 매개효과

김경숙¹, 장인자^{2*}

¹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학과 박사과정, ²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박사수료

The Effects of Perfectionism on Career Decision-making of Self-Efficacy of University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s of Extracurricular Clubactivity Satisfaction

Kyung-Suk Kim¹, In-Ja Jang^{2*}

¹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²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Kyongg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융복합 시대 대학생의 완벽주의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동아리활동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분석하기 위해 충청남도과 경기도 및 서울에 소재한 7개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총 271부 수집해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21.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량분석과 상관분석 및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첫째, 완벽주의가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완벽주의가 대학생의 동아리활동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동아리활동만족도는 완벽주의가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천적·함의와 기초자료로 제시한다.

주제어 : 완벽주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동아리활동만족도, 경로분석, 융복합시대

Abstract This research verified the mediated effect between the level of satisfactory from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the influence of perfectionism on self efficacy of career decisions. . In order to test the theory, a total of 271 students were surveyed from Seoul, Gyeonggi-do, and Chungcheongnam-do. SPSS 21.0 was utilized to study the frequency analysis and technical statistics and a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factors. Also, to test the mediated effect we used a recurrent analysis to perform a career analysis. The first result showed adoptable perfectionism affecting the students self efficacy in deciding a career by collecting information on jobs, setting a goal, planning and solving problems. Second, perfectionism influenced the satisfactory level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Third, the satisfaction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acted as a partially mediated effect between the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and students self efficacy in deciding their career by collecting information on jobs, setting a goal, planning and solving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indicates to be used as founding material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in order to develop programs to improve self efficacy in career choices for students.

Key Words : Perfectionism, Career decision-making of self-efficacy, Extracurricular clubactivity, Path analysis, Convergence

*Corresponding Author : In-Ja Jang(hera8705@naver.com)

Received January 31, 2018

Accepted February 20, 2018

Revised February 07, 2018

Published February 28, 2018

1. 서론

우리 사회에서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은 그 연령대에 이루어야 할 아주 중요한 발달과업 중의 하나이다. 대학생은 발달 주기별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동시에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전환하는 과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진로결정은 그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진학이라는 인생최대의 목표 때문에 진로발달이 충분한 시간을 걸쳐서 단계적으로 발달되지 못하고 대학재학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가능한 진로를 찾아보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1,2].

그러므로 현재 대학의 아주 중요한 과업중 하나는 재학생들의 취업목표달성과 진로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3]. 단순히 취업성공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근시한적 지원보다는 대학생들 스스로 진로특성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합리적인 진로선택과 선택결과에 따른 정보를 탐구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체계적인 진로지원프로그램이 매우 필요하다[4].

최근 들어 진로에 대한 연구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발달에 영향이 있는 인지적 변인들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6]. 진로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은 높은 수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가진 개인은 자신의 직업정보를 수집하거나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자신의 신념과 유능감을 겸비되어 있기 때문에 직업 탐색과 미래를 계획하는데 더 잘 수행할 수 있으며[7], 진로에 대한 깊은 생각과 태도가 성숙하다고 하였다[5]. 즉 진로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진로행동에 자신감을 심어 주고 진로성숙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탐색진로에 대한 태도와 진로에 대한 준비도 진로결정수준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11].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볼 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직업선택과정에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며, 또한 진로관련 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변인으로 지지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진로상담을 받은 대학생 내담자들의 33%가 완벽주의적 특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12]. 열악한 취업상황 속에서 개인이 더 높은 기준을 갖추길 바라고, 빈틈없는 일처리가 기대됨에 따라 대학생들은 스

스로 이러한 완벽주의 성향을 추구하게 될 수 있다.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진로나 학업에 관해서 주변인들의 기대감과 욕구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며, 이 단계에서 완벽주의적인 성격특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13,14]. 그런데 Duta와 Rohlfling의 연구에서는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인지적 왜곡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는 다시 높은 진로결정 수준과 연결고리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5-16]. 이와 같이 완벽주의가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일부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완벽주의가 갖는 부정적인 측면만을 크게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완벽주의적 성향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연설명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 대한 한계점을 보충하고 대학생들의 진로장면에서 각광받고 있는 개인내적 진로 관련 인지요인으로써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련성과 이들 간의 관계에서 대학생 동아리활동만족도의 매개효과에 주시하고자 한다.

무한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요즘 대학생들의 발달단계 중 하나가 잠재적인 직업을 탐색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직업선택을 확정지어야 하는데 그 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또래, 이성친구, 교수, 선배 등이 있다[17]. 이들과 서로 관계를 맺으며 정보, 자아개념, 가치, 관심분야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교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동아리활동과 같은 공동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단체를 통해 가능하다. 동아리활동은 자기개발과 진로탐색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여러 방면의 경험을 통해 각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며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살펴볼 때 대학생의 동아리활동은 필수교과 과정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길러진 교양, 기술, 취미 및 생활태도 등은 진로와 직업선택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18].

실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아리활동의 경험이 자신의 진로선택 과정에 어떻게 나타났으며, 동아리활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 연구에서 과학 동아리활동이 현재의 진로에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4,19]. 또한 전공과목과 연관된 동아리활동은 학생들의 진로 의식에도 변화를 주어 동아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

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진로, 창업, 취업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진로에 대하여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동아리활동에 관한 여러 연구들은 중·고등학생의 동아리 활동 연구로 제한되어 있으며 대학생의 동아리활동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학교생활만족도, 스포츠 동아리활동 또는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들[20,21,22]로 이루어져, 동아리활동이 대학생의 실질적인 진로발달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므로 동아리활동과 같은 실질적인 대학환경 속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을 고려한 진로발달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경쟁사회에서 대학생들의 성공적인 진로발달을 위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인지요인에 관심을 가지고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동아리활동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마련하고 사회복지실천이론 및 대학생의 진로프로그램 개발에 경험적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목적 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 1) 대학생의 완벽주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2)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대학생의 동아리활동만족도는 매개효과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천안지역에 소재한 7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2016년 5월 1일-5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자는 응답자에게 응답한 설문내용은 본 연구의 목적과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음을 설명하고 가능한 솔직하게 기입하도록 권장하였으며, 설문지는 자기기입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자 표집은 비확률표집인 편의표집 방법을 활용하였다. 질문지는 총 280부 배포하여 271부를 회수하였다. 조사대상자인 대학생의 일반적 특

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에는 남학생이 134명(49.4%), 여학생이 135명(49.8%)을 차지하고,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95명(35.1%)이고, 다음으로 4학년 73명(26.9%), 2학년 59명(21.8%)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에서 대다수의 응답자는 본인의 집에 거주한다고 응답하였다(59.4%). 1개월 평균용돈을 살펴보면, '30만원 초과~40만원 이하' 83명(30.6%)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20만원 초과~30만원 이하' 75명(27.7%)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한달 평균 용돈이 40만원을 넘는 경우도 20.7%(56명)나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2 측정도구

2.2.1 완벽주의

완벽주의 척도는 Slaney의 완벽성향 척도(Almost Perfect Scale-Revised: APS-R)의 적응적면과 부적용적면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되었던 척도를 남순동(2008)이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채택해 긍정부분만을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 라고 하였다. 완벽주의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졌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 순서로 나타내었다. 완벽주의 성향은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완벽주의 성향의 Cronbach's alpha값은 .805로 나타났다.

2.2.2 동아리활동만족도

동아리활동만족 척도는 Beard & Ragheb(1980)가 개발한 여가만족척도를 김영재(2004)가 번역하고 강병준(2008)이 수정·보완한 것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이에 본연구의 동아리활동만족 척도는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문항의 총합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 순서로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동아리활동만족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동아리활동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동아리활동만족도의 Cronbach's alpha값은 .935로 나타났다.

2.2.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는 Taylo & Betz(1983)가 처음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단축형(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 CDMSES-SF)을 이은경(2000)이 수정한 보완한 척도를 신종원(2015)이 재

구성하여 4개의 하위요인으로 분류한 척도를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요인은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과 계획수립 및 문제해결이라고 명명했으며, 내적일관성이 낮은 ‘나는 처음의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합리적인 대안이나 다른 진로를 알아낼 수 있다’를 제외한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 순서로 나타내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및 문제해결의 Cronbach’s alpha값은 각각 0.771, 0.850, 0.643, 0.630으로 나타났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WIN21.0을 활용하여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변수들 간의 양상을 살펴 보기 위해 통계분석을 실행하였다. 연구모형을 이루고 있는 주요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종속변수에 미치는 변수들 간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경로분석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매개변수의 유의성 검증은 Sobel test 방식을 이용하여 확률적으로 유의미함을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분석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인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완벽주의 및 동아리활동만족도의 변수들 간의 기술통계량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주요변인들의 평균값(표준편차sd)을 살펴보면, 대학생의 완벽주의 평균값은 3.45(sd=.67), 동아리활동만족도의 평균값은 3.31(sd=.63)로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Variables	N	Min.	Max.	Mean	S.D.	Skewness	Kurtosis	
Perfectionism	271	1.60	5.00	3.45	.67	.30	.15	
Extracurricular clubactivity	271	1.00	4.90	3.31	.63	-.52	1.45	
Career decision-making of self-efficacy	Collecting information on jobs	271	1.33	5.00	3.44	.63	-.01	.15
	Setting a goal	271	1.64	5.00	3.49	.61	.06	.15
	Planning	271	1.40	5.00	3.20	.62	.24	.15
	Solving problems	271	1.33	5.00	3.41	.68	-.22	.1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직업정보수집 평균값은 3.44(sd=.63), 목표설정 평균값 3.49(sd=.61), 계획수립 평균값 3.20(sd=.62), 문제해결 평균값 3.41(sd=.68)로 나타났다. 주요변인들의 평균값은 대체적으로 5점 척도의 중앙값인 3보다 모두 높게 분포하고 있다. 또한 주요변인들의 왜도 값과 첨도 값은 각각 절대값 3과 10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완벽주의 및 동아리활동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	Coefficient					
	1	2	3	4	5	6
1	1					
2	.17**	1				
3	.32**	.31**	1			
4	.36**	.30**	.76**	1		
5	.20**	.25**	.52**	.59**	1	
6	.28**	.25**	.38**	.39**	.31**	1

**p<.01, 1= perfectionism, 2= extracurricular clubactivity satisfaction, 3= collecting information on jobs, 4= setting a goal, 5=planning, 6=solving problems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직업정보수집과 완벽주의의 상관계수는 $r=.32(p<.01)$ 이고, 동아리활동 만족도와 상관계수는 $r=.31(p<.01)$ 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목표설정은 직업정보수집과의 상관계수 $r=.76(p<.01)$, 완벽주의와는 $r=.36(p<.01)$ 로 나타났으며, 동아리활동 만족도와와의 상관계수는 $r=.30(p<.01)$ 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살펴보면, 직업정보수집과 목표설정은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계획수립과 목표설정과의 상관계수는 $r=.59(p<.01)$ 이고, 직업정보수집과의 상관계수는 $r=.52(p<.01)$ 이며, 동

아리활동만족도와 상관계수는 $r=.25(p<.01)$ 를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문제해결과 완벽주의와는 $.28(p<.01)$, 동아리활동만족도와는 $.25(p<.01)$, 직업정보수집과 상관계수는 $r=.38(p<.01)$, 목표설정과 상관계수는 $r=.39(p<.01)$, 계획수립과 상관계수는 $r=.31(p<.01)$ 을 보여주고 있다. 완벽주의와 동아리활동만족도 간의 상관계수는 $r=.17$ 이고 유의확률은 $p<.01$ 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3.2 연구모형 검증분석 결과

본 연구모형은 대학생의 완벽주의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동아리활동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동아리활동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에 따라 매개효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좀더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Baron과 Kenny가 제시한 과정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23]. 첫째, 대학생의 완벽주의가 동아리활동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완벽주의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결과를 단순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셋째,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동아리활동만족도를 함께 투입하여 동아리활동만족도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본 후, 완벽주의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는지 살펴보았다.

3.2.1 동아리활동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완벽주의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및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

향에 있어서 동아리활동만족도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의 검증단계를 이용하여 Table 3에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23].

1단계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영향력 관계를, 2단계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의 관계 흐름을 분석하였다. 먼저 Table 4의 1단계에서 완벽주의($\beta=.17, t=2.90, p<.001$)는 동아리활동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매개변수인 동아리활동만족도에 대한 독립변인의 설명력은 3.0%로 나타났다.

Table 3. Model estimate

Path	B	β	t	F	R ²	adj. R ²
Perfectionism→extracurricular clubactivity	.16**	.17	2.90	8.39***	.03	.03
Perfectionism→collecting information on jobs	.30***	.32	5.56	30.95***	.10	.10
Perfectionism, extracurricular clubactivity→collecting information on jobs	.26***	.28	4.87	27.68***	.17	.17
	.26***	.27	4.69			
Perfectionism→setting a goal	.33***	.36	6.29	39.59***	.13	.13
Perfectionism, extracurricular clubactivity→setting a goal	.29***	.32	5.65	30.38***	.23	.22
	.23***	.24	4.31			
Perfectionism→planning	.18**	.20	3.05	10.84**	.04	.04
Perfectionism→extracurricular clubactivity→planning	.15**	.16	2.66	13.03***	.09	.08
	.22***	.23	3.83			
Perfectionism→solving problems	.28***	.28	4.78	22.88***	.08	.08
Perfectionism→extracurricular clubactivity→solving problems	.25***	.24	4.18	18.56***	.12	.12
	.23***	.21	3.63			

Table 4. Mediatet effect verification

Path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Perfectionism	→Extracurricular clubactivity	.174**		.174
	Extracurricular clubactivity		.265***	.265
Perfectionism	→Extracurricular clubactivity	.321***	.054*	.375
Perfectionism	→Extracurricular clubactivity	.174**		.174
	Extracurricular clubactivity		.241***	.241
Perfectionism	→Extracurricular clubactivity	.358***	.052*	
Perfectionism	→Extracurricular clubactivity	.174**		.174
	Extracurricular clubactivity		.227***	.227
Perfectionism	→Extracurricular clubactivity	.197**	.040*	.237
Perfectionism	→Extracurricular clubactivity	.174**		.174
	Extracurricular clubactivity		.211***	.211
Perfectionism	→Extracurricular clubactivity	.280***	.040*	.320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완벽주의는 종속변수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수인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및 문제해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각각 설명되었다($\beta=.32, t=5.56, p<.001$; $\beta=.36, t=6.29, p<.001$; $\beta=.20, t=3.05, p<.01$; $\beta=.28, t=4.78, p<.001$,). 이는 높은 완벽주의 집단은 비교적 높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특성을 보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을 지니고 있다(27,28,4). 또한 종속변수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및 문제해결에 대한 완벽주의의 설명력은 각각 10.3%, 12.8%, 3.9%, 7.8% 등으로 나타났다.

3.2.2 연구모형의 효과분해 검증

본 연구모형의 경로를 분해해 심층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또한 효과분해 검증결과는 Sobel test로 분석하였다.

또한 효과분해 검증결과는 Sobel test로 분석하였다. 효과분해 결과를 설명하면, 첫째,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동아리활동만족도 및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및 문제해결과의 관계에 있어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완벽주의는 동아리활동만족도에 직접적인 효과가 $\beta=.17(p<.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동아리활동만족도가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및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직접적인 효과는 각각 $\beta=.27(p<.001)$, $\beta=.24(p<.001)$, $\beta=.23(p<.001)$, $\beta=.21(p<.001)$ 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완벽주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및 문제해결에 미치는 각각의 직접효과($\beta=.32, p<.001$; $\beta=.36, p<.01$; $\beta=.20, p<.01$; $\beta=.28, p<.001$), 간접효과($\beta=.05, \beta=.05, \beta=.04, \beta=.04,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총효과($\beta=.38, \beta=.41, \beta=.24, \beta=.32$)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위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아리활동만족도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살펴보기 위해 Sobel test를 실행하였다. Sobel test 검증결과는 Table 5와 같으며, 동아리활동만족도가 완벽주의와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수인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및 문제해결 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동아리활동만족도는 완벽주의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수 각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Table 5. Mediatet effect verification

Path	Sobel test statistic	p
Perfectionism→Extracurricular clubactivity→Collecting information on jobs	2.537	.011
Perfectionism→Extracurricular clubactivity→Setting a goal	2.509	.012
Perfectionism→Extracurricular clubactivity→Planning	2.390	.017
Perfectionism→Extracurricular clubactivity→Solving problems	2.394	.017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경로를 검증함으로써, 동아리활동만족도가 어떻게 매개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그에 따른 논의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완벽주의를 추구할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수인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및 문제해결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추구하는 학생들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목표설정 및 문제해결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선행연구결과와 동일한 맥락을 볼 수 있다. 또한 Kim과 Suk & Cho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완벽주의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볼 수 있다(4,24). 대학생의 완벽주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수인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및 문제해결에 긍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개개인의 성격 성향인 완벽주의에 따라 차별적인 진로지도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을 수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자신과 맞는 직업군을 찾을 수 있도록

록 진로상담이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완벽주의와 진로에 대한 고민 및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입학과 동시에 자신의 성격검사, 진로검사를 실시해야 되며, 진로집단 프로그램에 참여를 권장하여야 할 것이다. 또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체험을 통한 진로계획서 작성과 직업탐색을 실시해야 된다.

둘째, 대학생의 완벽주의는 동아리활동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이 높은 기대를 가지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동아리활동에서 밀접한 대인관계가 형성되고 취업전선에 뛰어들기 전에 사회를 배우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어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위해 대학생 개개인의 완벽주의 성향에 맞는 학습동기와 자아존중감 및 성취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고 사회성을 길러 줄 수 있는 동아리활동이 대학생활에 있어 중요하다고 본다.

셋째, 동아리활동만족도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수인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및 문제해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아리활동만족도가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수인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및 문제해결간의 관계에 있어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학생이 완벽주의를 추구할수록 동아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 결과 자신의 미래 직업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 직업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전공 동아리활동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는 중요한 변수라고 하였으며, 제학 중에 활동한 전공동아리 활동이 진로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4,25]. 이처럼 대학생의 동아리활동은 새로운 정보를 얻게 하고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것을 간접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전공과 유사한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이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수상한 경험은 학과에 소속감을 심어주고 자신감을 향상시켜 진로 목표설정과 계획수립 및 직업정보수집능력도 향상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완벽주의가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동아리활동만족도가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완벽주의가 높으면 동아리활동만족도도

높아지고, 직업에 대한 정보수집이 높아지고 목표설정, 계획수립 및 문제해결 능력이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래서 동아리활동만족도가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다양한 동아리활동이 필요하다. 동아리활동을 하는데 있어 소모되는 장소, 환경, 물질을 제공해 주고 지지 및 공감에 동시에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Sobel test결과에서도 입증되었다. 이처럼 동아리활동만족도는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있어 긍정적인 매개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에 따른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첫째, 일부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여 추출한 결과를 활용해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전국 대학생에게까지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에 연구대상자를 전국 단위의 대학생으로 확산하여 후속 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는 동아리활동 요인을 제외한 자아존중감, 우울, 사회적 지지, 애착관계, 자아정체성 등의 관계를 주로 살펴보았다. 또한 동아리활동만족도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만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 이후에 다양한 학술분야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셋째,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있어 동아리활동만족도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REFERENCES

- [1] O. H. Choi & B. W. Kim. (2007). Career Optimism and Adaptability of the College Students : The Korean Validation Study of the Career Futures Inventory.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7(3), 821-833.
- [2] S. H. Park & H. J. Park. (2009). Coping as a Mediator between Career-Related Stress and Career Decision-Making in College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6(1), 67-81.
DOI : 10.16983/kjisp.2009.6.1.67
- [3] B. H. Lee. (2002). A Study on the Continuance of Early

- Experience in the Labor Market Implementation.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2(1), 1-18.
- [4] M. S. Suk & O. K., Cho. (2017). The Effects of Perfectionism on Career Decision-Making of Self-Efficacy of University Students : The Moderating Effects of Extracurricular Clubactivity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4(8), 195-219.
- [5] S. H. Lee.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eonsei University, Seoul.
- [6] J. H. Kim & B. Y. Choi. (2016). Analysis on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4(1), 25-42.
- [7] D. A. Luzzo. (1993). Value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in Predicting Career Decision-making Attitudes and Skil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194-199.
DOI : 10.1037//0022-0167.40.2.194
- [8] G. W. Park & K. H. Lee. (2007).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Mediated by Career Self-Efficacy.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19(2), 409-422.
- [9] S. R. Kim & M. K. Chung. (2014). The Effect of College Career Course on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The Korean Association for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6(3), 409-433.
DOI : 10.17927/tkjems.2014.26.3.409
- [10] Y. Kim, M. Kang, A. Cho & Y. Lee. (2011). The moder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indecisiveness on the relations among attachmen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ndecisio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3(4), 995-1016.
- [11] M. S. Park & S. H. Han. (2016). A Study on the Influence on the Career Decision Level, Creativity and Self-Determination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Training Courses from Lifelong Educator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6(6), 337-349.
DOI : 10.14257/ajmahs.2016.06.41
- [12] K. G. Rice, C. M. E. Richardson & D. Clark. (2012). Perfectionism, Procrastina-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9, 288-302.
- [13] M. G. Constantine & L. Y. Flores. (2006). Psychological Distress, Perceived Family Conflict, and Career Development Issues in College Students of Color.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4, 354-369.
DOI : 10.1177/1069072706286491
- [14] I. Gati, R. Gadassi, N. Saka, Y. Hadadi, N. Ansenberg, R. Friedmann & L. Asulin-Peretz. (2011).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Asp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 Facets of Career Indecisivenes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9, 3-20.
- [15] J. A. D. Duta. (2013). Perfectionism and Career Decidedness of Filipino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Studies in Education*, 2(4), 3-12.
DOI : 10.5861/ijrse.2013.493
- [16] J. E. Rohlfling. (2013). *Structure of Perfectionism and Relation to Career Indeci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rizona State University, Phoenix.
- [17] S. I. Kim, M. C. Kang & Y. K. Kim. (2011). The Relationships Among Adult Attachment Style, Parental Attachmen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ndecision : Based on a Moderated Mediation Model.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2(5), 1703-1718.
DOI : 10.15703/kjc.12.5.201110.1703
- [18] H. I. Choi, J. S. Lee & Y. K. Moon. (2012). The Effects of youth circle activity satisfaction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9(1), 23-45.
- [19] Y. H. Choi. (2017). The Influence of Participating in Club Activities at Art Institutes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 With a 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atisfaction with Club Activities. *The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5(1), 159-173.
- [20] E. K. Shin, K. Youn & J. K. Kim. (2016). The Effect of Club Activities 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Decision of Students. *Tourism Research*, 41(1), 133-154.
- [21] W. T. Lim & Y. J. Kim. (2006). Relationship between Enjoyment of University Students' Sports Circle Member and Activity Attitude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5(3), 265-272.
- [22] H. J. Jang & J. M. Kim.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of Participation Sports Circle of University Students and University Life Adaptation. *The Korean Journal of Sport*, 11(2), 113-124.
- [23]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5(6), 1173-1182.

- [24] M. S. Kim. (2008). *The Relationship Among Family System, Perfectionism,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Hongik University, Seoul.
- [25] Y. H. Choi. (2017). The Influence of Participating in Club Activities at Art Institutes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 With a 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atisfaction with Club Activities. *The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5(1), 159-173.

김 경 숙(Kim, Kyung Suk)

[정회원]



- 2014년 2월 : 서울사이버대학교 가족상담과(문학사)
 - 2016년 2월 : 한세대학교 가족 상담학과(상담학 석사)
 - 2016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가족상담, 가족트라우마, 세대진수, 모자공생관계
- E-Mail : passion129@daum.net

장 인 자(Jang, In Ja)

[정회원]



- 1991년 2월 : 제주대학교 물리학과(이학사)
 - 2007년 2월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석사)
 - 2011년 2월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수료)
- 2015년 3월 ~ 현재 : 이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관심분야 : 다문화, 여성복지, 청소년
- E-Mail : hera8705@naver.com